

## 인간의 심리, 야수의 성정(性情), 그리고 경제위기

제 목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  
지 은 이 조지 애커로프, 로버트 J. 실러  
출 판 사 랜덤하우스코리아  
출판년도 2009  
페이지 343쪽  
가 격 15,000

강 신 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다시 케인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해서 실업과 인플레이션과 같은 문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지식이다. 현재의 금융위기가 고삐 풀린 금융시장을 규제할 적절한 장치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위기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최근에는 식상하리만큼 자주 듣게 되는 주장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고해왔던 바이고, 더구나 대공황에서 2차대전 이후의 번영기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기까지 했던 내용들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식이 왜 오랫동안(적어도 1980년대 이후) 몰상식(?)한 주장으로 간주되고 심지어 무시되었을까?

최근에 번역된 조지 애커로프와 로버트 실러의 공저 “야성적 충동”(김태훈 역, 랜덤하우스 발간, 원제: *Animal Spirit*, 2009년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발간)은 이러한 상식을 대체한 후 80년대 이후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해 온 표준적 거시경제학의 인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한다. 그와 동시에, 과거의 상식이 낡은 사고방식으로 치부되었던 현실적 과정보도 설명하고 있다. 애커로프는 ‘레몬시장’이란 개념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이 정보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마이클 스펜스와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공동 수상)한 바 있다. 또 다른 저자인 실러 역시 수년 전부터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붕괴 가능성을 경고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이 이 책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통적 경제이론이 현재의 위기를 예견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하는 것은 인간의 ‘야성적 충동’에 관한 이해가 없었고 따라서 경제위기의 기저에서 작동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동성을 고려하

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래 케인즈가 사용한 개념인 *animal spirit*를 야성적 충동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독자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영어 표현이나 국어 표현 모두 표준적 거시경제학 이론과 케인즈의 거시경제 이론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전자가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고 인간의 행동은 합리적 선택과 등치되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후자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 경제적 불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포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흔히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에서 야성적 충동이란 기업가의 투자 결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가들은 이자율과 같이 시장에서 주어지는 정량적 신호보다는 장래의 경기변동에 대한 직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직관적 판단을 지칭하는 개념이 바로 야성적 충동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더 나아가 야성적 충동을 다섯 가지의 내용으로 구체화하는데, 자신감(confidence), 공정성(fairness), 부패와 악의(corruption and bad faith), 화폐착각(money illusion), 이야기(story)가 그것들이다. 여기서 자신감(주어진 정보에 근거하지 않는 무모한 믿음)이나 화폐착각(임금계약은 명목임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실질임금의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현상), 이야기(어떠한 언술들이 진실성에 대한 의혹 제기 없이 널리 유통되면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등은 인간의 행동의 비합리적 측면을 묘사하고 있다면 공정성은 인간의 행동에 합리성이 전제하는 자기 이익 추구 이외의 다른 가치가 개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개념이다. 이들은 거시경제의 작동방식 혹은 경제위기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8가지 질문을 제시한다. 왜 경제는 불황에 빠지는가, 왜 중앙은행이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가, 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생기는가, 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반비례하는가, 왜 미래를 위한 저축을 비계획적으로 운용하는가, 왜 금융시장과 기업투자는 변동성이 심한가, 왜 부동산시장은 주기적인 부침을 겪는가, 왜 소수계의 빈곤은 대물림 되는가 등이 그것이다. 이 질문에 올바르게 답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5가지의 야성적 충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사실 1930년대의 대공황에 국한하여 보자면 이러한 해석은 거시경제학 교과서에서 접한 익숙한 내용이지만, 저자들은 1990년과 2001년, 그리고 현재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세 번의 경기침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설명을 적용한다. 저자들은 야성적 충동의 영향을 통해 거의 모든 경제주기를 설명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야성적 충동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줄 것인가? 저자들은 현재의 위기가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와 아주 다른 특성을 가진 대안적 자본주의가 불가능하지 않음을 역설한다. 자본주의가 특정한 규칙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서 정부로 하여금 야성적 충동이 공공선을 위해 창의적으로 발휘하도록 통제하게끔 하는 것이 그 대안적 자

본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온갖 사후약방문이 넘쳐나는 지금, 이러한 진단과 대안은 어쩌면 이미 익숙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자들의 주장에 대해 일정한 거리 두기가 필요할지 모른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경제위기의 원인과 해법은 비록 과거 수십 년을 지배했던 경제학적 패러다임에 비취 볼 때 상대적으로 소수 의견이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수많은 통찰들 가운데 하나이다. 경제위기의 원인은 더 근본적인 데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자들이나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는 야성적 충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작업 역시 또 다른 야성적 충동을 요구하는 일일지 모른다.